

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포레미콘
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원중 · 유정희 부위원장님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
입니다.

□ 서울시민 김태형 외 1,684명이 청원하고 본 의원이 소개하는
「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포레미콘 즉각 퇴거 및
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
니다.

□ 지난 6월 16일 풍납동 주민 故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는
늦은 시간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운전자 시야가 오롯이
확보되기 어려운 위험천만한 도로 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.

- 이곳 인근은 올림픽대로 남단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이용자와 종사자, 인근 학교를 등·하교하는 통학생 등 보행량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보행육교 조성 요구가 많은 곳입니다.

- 또한, 풍남동에 위치한 삼표풍납공장(삼표레미콘)을 오가는 수송 대형트럭 운행이 빈번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진입로의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일대의 사고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.

- 그런데, 문화재청 행정당국은 미관상 풍납토성의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위치의 육교 신설을 불허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.

-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풍납동에 과도한 개발규제를 적용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왔으며,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안으로 풍납동 주민의 거주 자유까지 제한했습니다.

- 나아가 안전한 통행권 확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풍납동 주민이었던 故 주석중 교수의 교통사고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 안전 보호책임을 도외시한 결과로 해석하기 충분합니다.

- 이에 풍납동의 보행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첫째, 송파구에 삼포풍납공장 부지 강제수용이 결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포레미콘의 즉각적인 퇴거 조치와 둘째, 풍납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청원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